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러시아 부패 동향 분석 Analysis of corruption trends in Russia post Russia-Ukraine war

이 구(Lee, Gu)*·이정희(Lee, Jung Hee)**

ABSTRACT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analyzes the impact of corruption on the ongoing Russia-Ukraine war, examining trends in corruption crimes.

Corruption not only affects Russian defense but also hampers the war effort. According to Transparency International Defense & Security's 2020 Government Defense Integrity Index (GDI) survey, there is high external supervision in politics, finance, operations, and procurement (excluding personnel). The risk of corruption is high, transparency is limited, and corruption-related protection measures for operations and procurement are deemed insufficient.

The corruption issue in this war gains additional significance given the conflict's evolution from 2014 to an all-out war in 2022. Despite expectations of a swift end due to military power, the war persists,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corruption in Russia is a major contributing factor. Future research should explore corruption issues related to war as an alternative topic in corruption research.

Key words: Russia-Ukraine war, corruption, Russian corruption, Russian corruption trends

* 제1저자: 중앙대학교 동북아개발협력연구소 선임연구원, 동북아학박사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응용경제학박사

I. 서론

국제투명성기구 2022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국방예산은 GDP의 4%, 620여억 달러 규모인데, 이중 최소 20%에서 50%까지 내부 비리 및 부패 등으로 빼돌려지고 있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다. 국방 분야의 부패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사중손실(死重損失, dead-weight loss: social loss)을 초래하고 특히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재형, 2016).

국제투명성기구 국방안보팀(Transparency International Defense & Security)의 2020년 정부국방청렴지수(Government Defense Integrity Index, GDI)¹⁾ 조사에서 러시아는 D등급의 36점을 받아 부패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GDI는 정치(political)·재무(financial)·인사(personnel)·작전(operational)·조달(procurement) 등 다섯 개 영역에서 청렴도를 분석하는데 러시아는 정치에서 37점, 재무에서 39점, 인사에서 54점, 작전에서 15점, 조달에서 36점 등 매우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실제로 인사를 제외한 정치, 재무, 작전, 조달 분야는 외부 감독과 견제가 높기 때문에 부패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패에 대한 투명성도 제한적이며 작전과 조달에 대한 부패 관련 보호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

실제로 러시아의 국방개혁은 2014~2015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부 성과를 나타낸 것처럼 보이지만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러시아의 군사 부문에서 일어난 부패문제이다. 러시아는 구의 현대화를 위하여 많은 자원을 배정하였으나 일부 추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러시아 군사 부문에 배정된 자금의 최대 40%를 부패문제로 투입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횡령이나 뇌물 수수 등의 부패문제로 실제 자격이 없는 공급 업체와 군수장비 조달 또는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표준 이하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저품질의 대체품을 구입하기도 하였다.(박주경, 2022) 이러한 부패가 러시아 군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에 전면전으로 확대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전쟁 양상에서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압도적인 전력으로 조기에 전쟁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은 러시아의 부패가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될 가능성이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러시아에서의 부패문제가 2014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준으로 부패범죄의 동향이 어떤지 파악하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전과 이후의 부패 동향을 분석하여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부패가 미치는 영향을 분

1) 국제투명성기구 국방안보팀(Transparency International Defense & Security)
 <<https://ti-defence.org/gdi/countries/russia/>>, (2023년 10월 24일 검색).

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러시아 부패문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전쟁과 부패의 연관성을 분석하는데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러시아 부패에 관한 논의

Anastassia와 Alexander(2015)은 체제 전환기의 러시아의 부패 현상을 풀어 부패, 공급, 수요, 태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하고 현대 부패문제의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하였다. 2011년의 부패와 관련된 설문을 기반으로 연구되었으며 2011년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약 20년이 되는 해로 공산주의 해체 20년 후 공산주의 유산을 추적하고 현대 부패의 잠재적인 영향을 탐구할 수 있는 해라고 설명하며 1990년대부터의 반부패 관련된 정책을 설명하였다. 연구 결과 공산주의 유산이 현대 러시아의 부패의 각 측면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Bernard와 Anna(2003)는 러시아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시장 경제를 위해 계획 한 결과 세부적인 요소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러시아 사례 연구를 통해 이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체제 전환을 위한 반부패 정책, 기업 개혁정책, 조세 개혁, 상법 개혁, 건물법의 집행, 경쟁과 무역 정책, 은행 개혁, 농지개혁을 분석하여 이러한 정책이 부패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혔다. 러시아의 법적, 제도적, 미시 경제적 개혁을 부패의 만연한 영향을 지속적인 홍보와 반부패 기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Tsepelev, Vlasov와 Drozdova(2019)는 러시아 연방 형법에 따라 부패 범죄를 저지르고 형법의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식별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뇌물 및 기타 부패 현상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하였다. 부패 현상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해 부패에 대한 범죄는 기본적으로 형법을 중심으로 형사 책임을 받을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Leslie(2008)는 푸틴시대의 러시아에서 부패와 범죄 조직에 관한 동향 분석을 진행하였다. 2000년 푸틴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부패와 조직 범죄율 감소에 대한 정치적인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 정책을 펼쳤으나 2007년 부패인식지수에 대한 영향을 미비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구소련에서 러시아로 체제 변환을 하게 되면서 증가한 범죄조직과 정치세력이 결탁한 부패 구조는 중장기적으로 세계와의 경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김정훈(2008)은 러시아 마피아의 기원이 될 수 있는 범죄조직의 형성과 관련 있는 제정러시아 시기의 경우 이들의 행위는 생계수단의 해결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소비에트 시기에는 범죄조직과 권력이 유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자본주의 도입기에는 경제와 금융에 관련된 마피아의 세력이 우세 현상을 나타냈으며, 자본주의 정착시기에 들어서는 올리가르히와 '실

로비키 등과 유착한 정치 또는 범죄 마피아 세력의 양성을 주장하였고 관료조직과 범죄조직이 일종의 공생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구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김진만(2000)은 러시아부패의 문제점과 행정통제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러시아 부패현상의 원인에 대해 법에 의한 지배 전통의 부재, 전체주의 과거의 유산이 러시아 연방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 빈곤과 경제적 붕괴와 사유화로 정격유착의 극심화, 경제체계의 구조적 병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간의 분별력 부족, 문화적 측면에서의 부패 현상을 일상으로 여기는 인식, 부패에 대한 인식 부족, 조직범죄 집단 마피아가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의 부패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국가정책의 필수적 요소이나 실제 러시아의 법조항의 입안이나 실행을 막는 장벽 중 고위 관료들의 부패 연류와 고정관념에 의한 권력 유지·지배구조로 러시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최대의 장애요소라고 하였다.

III. 국방안보와 부패에 관한 논의

국제투명성기구 국방안보팀(2023)은 전쟁에서 반부패와의 연관성은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지만, 취약한 거버넌스와 부패가 특정 기관에 영향을 미칠 때 특히 위험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특히 국방 및 안보 부문의 부패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전쟁에서 안보를 위하여 영토를 온전히 유지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며,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고안된 반부패 기관이 사익에 종속되거나 종속될 때 평화와 안보는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2020년 정부국방청렴지수에서는 러시아와 같은 부패한 권위주의 정권이 어떻게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지를 실증했으며 부패가 러시아 군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여주었다. 전경국(2021)은 군 부패요인을 병역, 인사, 군납 비리로 분류하였고 실증분석을 통해 군대의 부패문제가 병역, 인사, 군납 비리 모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박주경(2022)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군수 분야 문제에 집중하여 살펴보았고 러시아 군대의 국방전력의 약화 원인중 주요 요인중 하나가 러시아의 고질적인 부패문제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군수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문제는 러시아 군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였다. 이재형(2016)은 부패의 편차가 군비 지출의 차이에 원인이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증 분석을 진행 하였다. 부패로 인해 국방비의 예산 지출이 왜곡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진영(2015)은 국방과 관련한 부패의 특징으로 규모가 크고 부패가 국제사회에 걸쳐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방과 관련한 부패는 국가 간 갈등이나

안보 동맹에도 위협 요인이 있으므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국방 부패에 관한 특징과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국방 부패의 분야별 부정적 효과

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대에 대한 신뢰하락 - 작전효과 저하 - 부적절한 장비 - 예산 낭비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에 대한 신뢰하락 - 국방과 안보에 대한 지나친 통제
경제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 지체 - 자원배분의 왜곡 - 국가안보와 안전에 대한 신뢰 추락

* 자료: 김진영(2015)의 p124 표를 재인용

<표 1>에서 국방과 관련한 부패의 분야별 특징을 살펴보면 단순히 군사와 안보의 위협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와 경제발전에도 부정적 요인을 미치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전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국에는 국가운영에 있어서도 큰 부담을 줄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상황을 대입해보면 푸틴의 독재체제로 인한 국방과 안보에 대한 지나친 독점과 국가자원을 국방자원에 너무 많이 투입시켜 발생하는 부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발생하는 러시아의 미흡한 작전 수행 능력등이 함께 투사되는 것을 알수 있다.

<표 2> 국방 부패의 유형

개인적 부패	1. 정부구매로부터 이익 챙기기(뇌물, 수수료, 등) 2. 군인건비 빼돌리기(일정비율편취, 허위인건비계상, 패거리에게 지불 등) 3. 국가소유 자산으로부터 이익 챙기기(군사 장비 불법 대여 등) 4. 예산이나 자원의 사적유용(자기 컨설팅, 자동차 주택의 무상이용 등) 5. 민간 방산회사로부터 뇌물 받기 6. 보상 승진 원칙의 임의 적용(패거리 특혜, 보상의 임의 적용, 태업 등)
정치적 부패	7. 합의되지 않은 국방정책 8. 예산 밖의 지출 9.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권력연합(power networks)과 조직범죄 10. 선거에 국방을 활용 11. 부패한 사법처리 12. 국방정보의 그릇된 수집과 이용

* 자료: 김진영(2015)의 p125 표를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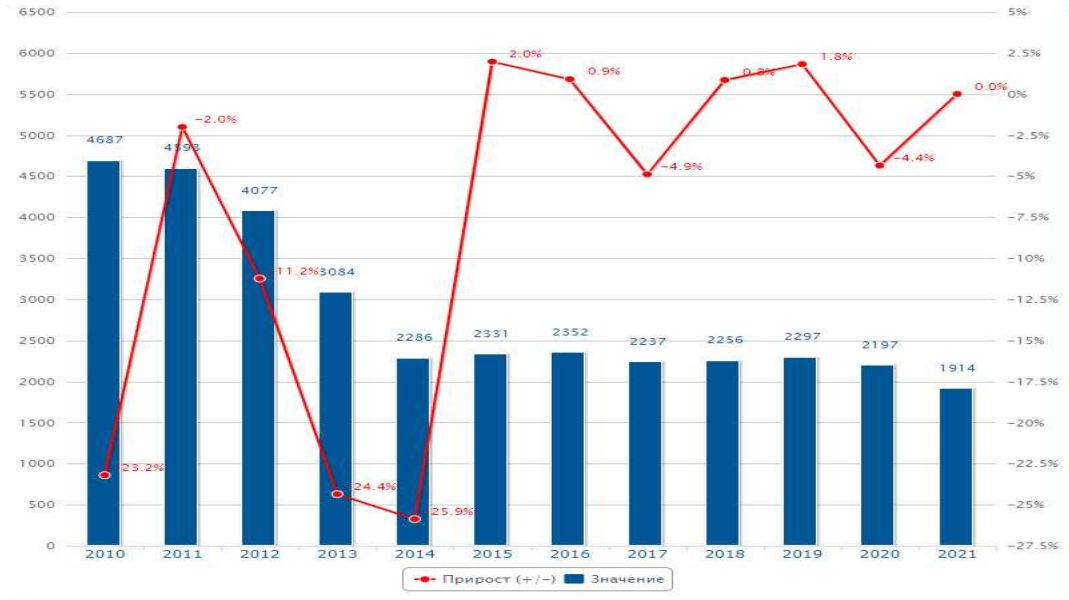
<표 2>에서 국방과 관련한 부패의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적 부패는 군대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고 전쟁수행 능력을 현저히 저해 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치적 부패를 살펴보면 간접적으로 군대의 군사력을 저해하고 군사전략을 펼치는데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요소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를 살펴보면 국방 및 안보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는 실제로 전쟁수행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국가의 주요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가경쟁력도 약화시키며 전쟁실패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연일 국가의 부패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연관성을 위시하여 강조되는 상황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안보와 직결되는 부패문제는 현재 러시아 뿐만 아니라 분쟁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IV.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부패 동향 분석

러시아연방검찰청 법률통계포털²⁾에서는 부패 문제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형법 제 285조 공권력 남용, 러시아 연방형법 제 290조 뇌물수수, 러시아 연방형법 제 291조 뇌물제공 등으로 나누어 진다. 러시아연방검찰청 법률통계포털에 2010년부터 최근 2021년, 2022년 까지의 연도별 부패 범죄발생 건수와 증감률은 다음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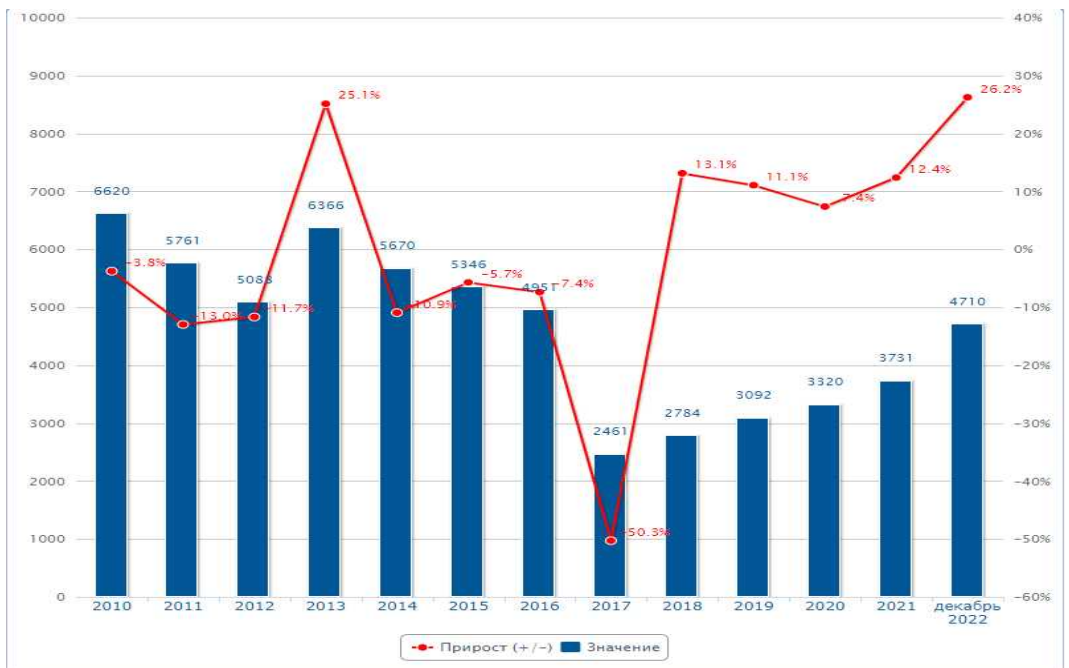
2) 러시아연방검찰청 법률통계포털<http://crimestat.ru/offenses_chart>, (2023년 10월 30일 검색).

<그림 1> 러시아 연방형법 제 285조 공권력 남용



자료 : 러시아연방검찰청<<https://genproc.gov.ru/anticor/doks/document-81540/>> (2023년 10월 30일 최종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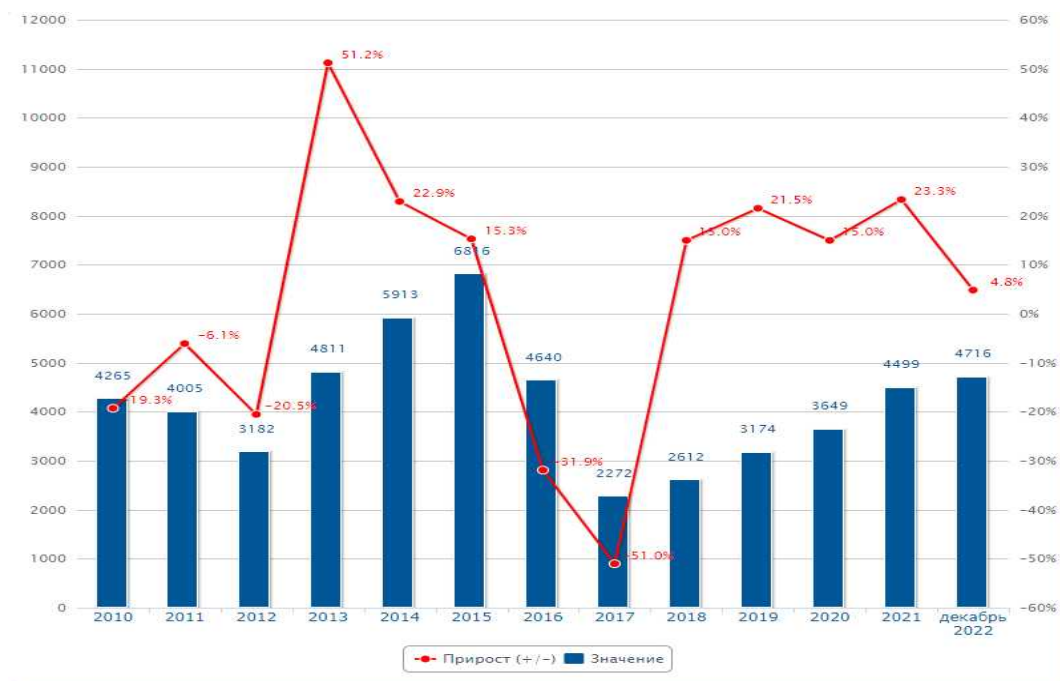
<그림 2> 러시아 연방형법 제 290조 뇌물수수



자료 : 러시아연방검찰청<<https://genproc.gov.ru/anticor/doks/document-81540/>> (2023년 10월 30일 최종 검색)

러시아 연방형법 제 285조 공권력 남용과 관련된 부패 건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까지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14년에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후 2014년부터 2021년까지는 큰 변화없이 범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13년에 시행된 부패방지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제309호의 강력한 반부패 방지법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부패가 감소되었다고 보기에는 제 290조의 뇌물수수나 제 291조의 뇌물제공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러시아 경제가 악화되는 시점이었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도 커져 석유가격이 하락하고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시기였다. 따라서 러시아 경제가 힘든 시기에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었다. 그러나 전쟁 이후 푸틴의 강력한 반부패 방지법의 압박으로 실제 공권력 남용에 의한 부패 문제는 전쟁 이후 점차 감소추세로 보여지고 있다. 공권력 남용은 공적부패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기에 이러한 반부패 방지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 러시아 연방형법 제 291조 뇌물제공



자료 : 러시아연방검찰청<<https://genproc.gov.ru/anticor/doks/document-81540/>> (2023년 10월 30일 최종 검색)

러시아 연방형법 제 290조 뇌물수수와 관련된 부패범죄를 살펴보면 관련 범죄 건수는 2014년을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서방의 경

제재로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몇 년간은 뇌물수수과 같은 부패 범죄가 2017년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강화 단계(2014년 7월~2017년 8월)인 시기에도 2017년부터 러시아 GDP는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러시아의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에 뇌물수수의 범죄가 줄어들었고 2018년 푸틴 4기 출범 이전부터 강력한 반부패 방지법 시행과 정부의 물자 구매와 관련하여 부패 범죄와 관련된 자는 입찰을 금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도 시행해 나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은 높아졌으며 러시아인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들었다. 러시아 내부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한 법집행에도 불구하고 뇌물 수수의 범죄는 계속 증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 연방형법 제 291조 뇌물제공과 관련된 범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연방 대통령령 제309호의 강력한 반부패 방지법이 발표되었음에도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2017년에는 -51%로 급감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패 범죄의 증감 양상은 러시아 연방형법 제 290조의 뇌물수수과와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부터 뇌물제공과 관련한 부패 범죄는 감소하였지만 이후 뇌물제공과 관련한 범죄는 오히려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푸틴 4기 집권 이후 강력한 강력한 반부패 방지법이 초반에는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었을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의 고질적인 부패 범죄는 해결되지 않고 러시아의 내부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부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의 부패범죄 동향을 분석해 보면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2017년에는 부패 범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푸틴의 강력한 반부패 방지법이 어느정도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러시아 내부의 고질적인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Günther, Nikita(2018)는 러시아의 부패는 본질적으로 체계적이며 공공의 낮은 임금 수준이 러시아의 관료에게 부패에 관여하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의 부패문제는 대중의 인식에는 부정적으로 볼일 수 있지만 독재정권에서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서는 인정받게 되는 러시아 내부의 사회적 현상이며 정치적인 안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패 관행은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권력과 독재를 장기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의 악화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러시아 관료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꾸준히 증가하는 부패범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보다 일상적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로 판단하였다.

Barany, Zoltan (2023)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군대가 고전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첫 번째는 푸틴의 군대 통제권 독점으로 이는 군사 및 국방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 개진 문제, 두 번째는 러시아 군대의 개혁실패로 인한 전투력 부족, 세 번째는 러시아의 인적 자원 문제, 네 번째는 러시아 방위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마지막으로, 기존의 약체국가를 상대로 수행한 전쟁을 서방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동일시한 점이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러시아는 푸틴의 안보중심의 군 통제권 독점과 독단적 결정, 민간과 군사 당국 사이의 역기능적인 관계, 비효율성, 러시아 내부의 고질적인 부패등이 러시아의 군사력을 약체화 시키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반부패 제도를 펼친다고 하여도 내부 경제의 악화로 러시아의 지속적인 부패 문제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부패 문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전쟁과 부패의 인과의 메커니즘을 현황 분석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였으나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군사력과 부패의 관계를 살펴보지 못 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부패가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해 본다면, 전쟁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패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위와 같은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후속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정훈(2008), “러시아 마피아의 특성과 발전단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0(19): 147-175.
- 김진만(2000), 러시아 연방의 관료 부패와 행정 통제의 문제점. 『슬라브연구』, 16(1): 21-35.
- 김진영(2015). 국방과 안보 분야 부패에 관한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20(4): 1-22.
- 박주경(2022), 우크라이나 전쟁: 군수지원 차원에서 본 시사점과 정책 제언. 『전략연구』, 29(2): 155-191.
- 이재형(2016). 부패가 군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 국가군별 패널 자료 분석. 『아시아리뷰』, 6(1): 73-93.
- Anastassia Obydenkova & Alexander Libman(2015), Understanding the survival of post-Communist corruption in contemporary Russia: the influence of historical legacies. *Post-Soviet Affairs*, 31(4): 304 - 338.
- Barany, Zoltan (2023). Armies and Autocrats: Why Putin’s Military Failed. 『Journal of Democracy』, 34(1): 80-94.
- Bernard S. Black & Anna S. Tarassova(2003). Institutional Reform in Transition: A Case Study of Russia. University of Chicago.
- Günther G. Schulze, Nikita Zakharov(2018), Corruption in Russia - Historic Legacy and Systemic Nature. CESifo Working Paper No. 6864.
- Leslie Holmes(2008). Corruption and Organised Crime in Putin’s Russia. *Europe-Asia Studies*. 60(6): 1011-1031.
- Tsepelev V.F., Borisov A.V., Vlasov A.V., Drozdova E.A(2019). Corruption and Legal Limits of Anti-Corruption Enforc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Volume VII, Special Issue 1, 204-208

인터넷 사이트

- 러시아 연방검찰청<<https://genproc.gov.ru/anticor/doks/document-81540/>>
- 러시아연방검찰청 법률통계포털<http://crimestat.ru/offenses_chart>
- 국제투명성기구 국방안보팀<<https://ti-defence.org/gdi/countries/russia/>>

투고일자 : 2023. 12. 10

수정일자 : 2023. 12. 27

게재일자 : 2023. 12. 31

<국문초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러시아 부패 동향 분석

이 구 · 이정희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부패 범죄 동향분석을 통하여 전쟁이 지속되는 와중에서 부패문제가 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면에서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부패문제는 러시아 국방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며 실제로 러시아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부정적인 문제를 도출해 내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국방안보팀(Transparency International Defense & Security)의 2020년 정부국방청렴지수(Government Defense Integrity Index, GDI)' 조사에서도 실제로 인사를 제외한 정치, 재무, 작전, 조달 분야는 외부 감독과 견제가 높기 때문에 부패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패에 대한 투명성도 제한적이며 작전과 조달에 대한 부패 관련 보호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전쟁과 관련한 부패문제는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 전면전으로 번진, 러시아와-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양상에서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압도적인 전력으로 조기에 전쟁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러시아와-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은 러시아의 부패가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쟁과 관련한 부패문제는 부패연구의 대안적 과제로써 향후 연구되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부패, 러시아 부패, 러시아 부패동향